

토요일 오전 세미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본문: 출애굽기 3:6-14

출애굽기 3 장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분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 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 약간의 신비한 구경거리 (엔터테인먼트)적 무대 배경효과를 동원하여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1-6 절), (2) 모세에게 당신의 언약적 속박감을 피력하시고 모세의 동역과 협조를 구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7-14 절), (3) 출애굽의 기초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동역하고 연대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15-22 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상속자 모세

3:1 은 매우 일상적인 모세의 동선을 보여줍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는 수개월 동안 목초지를 찾아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적인 날에는 모세가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당도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서쪽”이 아니라, “광야 목초지를 지나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양떼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영적 갈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당시의 미디안 족속과 유목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진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현현(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산)이 발생한 신성구역으로 알려진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처음으로 접근했다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이곳은 모세가 익숙히 아는 땅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자 야웨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싸고 있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는 큰 광경이었습니다(2-3 절). 떨기나무 불꽃쇼로 모세를 좀 더 아늑한 곳으로 유인하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그를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다정하게 여기며 오랜 친구처럼 부르셨습니다(4 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믿으실만한 인물이 나타나면 다정하게 고유명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명사로 알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은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 하나님나라완성의 대역사에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모세를 두 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다가 그를 마침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표준적인 예언자적 응답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4 절).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

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더 이상 불꽃 쪽으로 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5 절). 모세는 하나님의 신성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인간적 자아를 상징하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최고로 순도높은 감응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구역에 초청된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첫 신성구역 입장 프로토콜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6-1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였을 때 모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삼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히브리 노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죽 족장 약속(특히 가나안 땅 상속약속)의 성취여부는 모세의 필생의 중심 관심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출 3:1-6).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창세기의 족장 전승을 정통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족장전승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아 강대하고 큰 민족(고이 가돌)이 되어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언약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언약적 의무감을 대리해서 성취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사명—노예해방!

7-10 절은 모세에게 위임된 필생의 과업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파라오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출(出)애굽-가나안 정착의 구원대사를 중개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물론 출애굽-가나안 인도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대리하고 성육신해줄 인간동역자, 중보자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담감을 줄여주시기 위해 당신이 출애굽-가나안 정착이라는 대역사의 총괄집행자임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3 장 7-8 절은 일련의 지각동사를 중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약적 투신을 부각시킵니다.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일련의
지각동사와 그것들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구원행위 부각 동사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정녕히
보고...듣고...알고...내려와서...건져내고...인도하여...이르려 하노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 백성을
지칭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지금은 400 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의
언약파트너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역(노예해방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임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 통보를 받은 모세의 첫
반응은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11 절). 출애굽 사역이 자신이 홀로 감당할 사역인 것처럼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2 절의 첫 소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어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접속사 키(kî)를 ‘반드시’로 번역했는데 그
뒤따라 나오는 동사 하야(hāyā, to be)의 1 인칭 미완료(에흐예[‘ehÿye])와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을 고려해 볼 때, 키(kî)를 부사가 아니라 이유접속사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문맥상, 11 절의 모세의 거절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논리를 소개하는 절로
이유접속사절이 뒤따라오는 것이 더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12 절의 하반절에서는 야웨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질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제시됩니다. 즉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입가나안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공증하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된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노예반란을 일으켜 체제정변을 획책한다면 히브리 노예들은 모세의 신적 파송을 의심하겠지만,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와 하나님경배로 이끈다면 그것은 필시 모세 자신의 정치적 야심(나라를 세우려는 야심)에 따른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 혁명임을 백성들도 알게 되고 모세 자신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1 인칭 대명사 아노키의 독립사용을 통한 신적 의지 강조) 너를 보낸 증거니라”(12 절).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너 모세를 보낸 증거는,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히브리 노예들을 이 호렙산으로 이끌어내어 모세의 신적 파송과 신임을 온 백성에게 공증시킬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기획이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절대주권적인 구원 기획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중간 검증장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셨다면 모세에게 주셔야 할 한 가지 표징은 만일 출애굽한 노예들이 호렙산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집단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신현현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출애굽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주권적인 구원 기획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3:7-12, 특히 11-12 절). 즉 히브리 노예들이 호렙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모세 및

히브리 노예들은 출애굽 탈출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구원 기획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 등이 순전히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 일으킨 일종의 정변에 불과한 사건으로 격하될 것입니다(참조. 왕상 12 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업을 주시면 반드시 그 과업을 수행할 권능도 주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 및 가나안 인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무장시켜 줄 것이며 시종일관 그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십니다(3:1-4:17). 하지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모세를 안심시키거나 확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동일성, 정체성을 캐묻습니다. 인류종교사에서 이처럼 독특하고 희귀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불꽃 누미노제(거룩한 섬광)적 현존으로 압박하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질문이기 이전에 히브리 노예들이 제기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파라오의 채찍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력과 경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사변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에 퇴적된 신의 행적을 캐물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 전에 당신이 경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0 장은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긴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 지성과 권능의 종합적 총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행동과 말을 통해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추론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종국적으로 그들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 당신의 업적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력서를 떼 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13 절). 모세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물론 그를 파송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력과 행적, 출애굽-가나안 인도라는 대역사를 감행하시려는 그 궁극목적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어떤 철학자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시종일관성, 인격적인 일관성을 무엇인지를 따지고 캐묻습니다(시 103:6-7). 이름은 일관성, 즉 자아 동일성(정체성=identity)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자기이름계시 문장이 이 맥락에서 배출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3:14).

15 절은 14 절을 부연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3-15 절 전체 맥락을 보면 15 절은 이미 13 절에서 한번 간략하게 진술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 절 대답이 ‘모세 그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가상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먼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13 절과 15 절 그리고 14 절에서
게시되는데 사실상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1)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히브리 노예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430 년 전에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시킬 부담을 안고 있는 하나님임을 계시하십니다. 오래 전에 이 히브리 노예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역사속에서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역사의 한 시점에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며 세대들과 역사를
넘어가기까지 하며 성취시키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소개로는 아마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전히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게시에 부연이 덧붙여집니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음역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ehÿe 'ăšer 'ehÿe)이다. 이런 구문은 한국어 번역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칠게나마 영어로 번역해 직역해 보고 나서 이 의미를 추론해야 합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정도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유비로도 내 이름을 계시하지 못한다. '나는 항상 자신이고자 소원하고
의향하는 바로 자신이다(3:14). 즉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어떤 외부요인이나 세력이
없다.' '나는 항상 자신됨을 유지할 것이다.' 이 이름게시의 의미는 구문해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 문장으로 제시된 하나님이름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나다'라는 이름 뜻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적
일관성, 성품과 목적의 일관성관 견고성, 신뢰함직성을 강조하는 이름임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다시 풀어쓰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지금도 생각하고 의식하며 그것을 지킬 의지가 가득 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옛날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 아래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계약적 의무) 또한 자신은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3:13-22).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동사 이름(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은 '함께 하겠다'(3:12, 에흐예 임마크)라는 문장의 축약형 문장이거나 호환가능한 문장인 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에 속박된 하나님으로서 그 계약을 성취시킬 때까지 인간 계약당사자와 함께하실 것을 확신시키는(창 28:15; 사 43:1-4) 은혜로운 동사 이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모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15 절에서 하나님의 동사문장 이름은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시되며, 하나님은 당신이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리게 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 아래서 활동하고 온 세상에 추상화된 하나님의 이름을 공포하기보다는 고유명사를 가진 특별개인들의 하나님으로 영구적으로 불리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떠돌이 개인들(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난 종교난민)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서 세계만민의 보편적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입증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의 하나님

인류의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개인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과업에 실패하

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도 없는 난민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 힘없는 개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힘없는 개인을 구원해 셔서 당신의 신뢰를 얻기 시작해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 되는 데 성공한 후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핍과 결핍을 주목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결핍/결핍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목하다가 마침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보금자리(땅)를 찾아 먼 거리 여정이라도 감행하려던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 속 소원을 주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대물림을 해줄 자녀를 출산하기를 열망하는 아브라함과 사래의 소원을 포착하셔서 창세기 12:1-2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하늘별처럼 많은 후손을 얻으리라>. 땅과 후손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포획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1-2에서 처음 말씀을 걸어왔지만 창세기 11:27부터 아브라함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연적이고 심층적인 소원을 주목하시고 그것에 거룩한 대의명분을 덧붙여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자연적 심층적 소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대의명분이 맞물리는 영적 감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인간공동체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신적 소원을 고취하시고 신적 사역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은 빈번하게 당신을 세 사람의 특수개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단지 이스라엘의 생물학적 조상을 가리키는 개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을 찾을 때까지 어떤 도시국가나 제국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창조적 방황을 감수하는 난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뜻은 <하나님은 난민

1 세대, 난민 2 세대, 난민 3 세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찾는 모든 난민적 실존들에게 땅이 되시고 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기독교인들만의 경전이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이 세상에 널브러진 난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 소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말 걸어오시고 사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은 주전 17 세기 전후의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출신 셈족이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는 한 2,000 명 정도의 성 거주 지배층이 성밖에 사는 2-3 만 명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성 밖에서 살던 2-3 만명은 도시국가의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도 내는 예속민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양을 쳤고 경작지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시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양의 목초지를 따라 6 개월 동안 정착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 밖에 사는 떠돌이의 하나님, 성 밖에 사는 떠돌이 2 세의 하나님, 성 밖에 사는 떠돌이 3 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압박당하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겼고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과 목초지를 빼앗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그 성의 유력자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한 종살이를 강요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 안에 사는 무력을 가진 왕에게 이처럼 시달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나는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군주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면서 압박당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압박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 온 인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압박당하는 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한 이 하나님은 세계만민이 찾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만민 향도적인 선민의 하나님, 만민 포용적인 선민의
 하나님이며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은 보금자리 없이 방황하는
 난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시 103:6).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는 노예해방의 챔피언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 에서 야웨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은 선민사상의 원조라고 간주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출 3:6).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호칭은 오늘날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선민사상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선민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복무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만민향도적, 만민내포적
 선민사상이기 때문입니다(창 12:1-3; 18:18-19, 22:17-18: 출 19:5-6; 신 7 장; 암 3:2;
 갈 :312-18). 구약성서는 자기희생적, 자기부인적 선민사상을 말하며 만민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모범적 실천해야 하는 선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6 의 하나님의 자기호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중기, 후기 청동기시대에 하나님이 구사한 자기호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안에는 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도시의 노동분업체계와 사회적 위계질서,
 행정-군사적 보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
 거주자>들에게 시달리는 난민적 개인들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후기청동기
 시대에(주전 18-16 세기) 도시,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전 18-17 세기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는
 대체로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봉신 도시국가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는 도시국가들의 영성한 통치로 인해
 유입난민들이 비집고 들어갈 빈 땅(특히 산지 초목지)이 많았고 도시국가들이 가나안
 영토를 다 지배하지 못했습니다(수 17:15). 이런 난민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생물학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집단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는 파라오같은 절대군주에 비하여 노예를 자기백성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밖에 사는 난민적 유민들을 자기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성서의 선민사상에는 인간의 정의감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작동합니다.

히브리서 11:10-11(8-16 절)이 증거하듯이, 아브라함은 성 밖에서 아들, 손자와 함께 장막에 살면서 야생 목초지를 따라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으나 낯선 남의 땅인 것처럼 그 땅 언저리에서 나그네처럼 우거하였지만, 도시국가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에 들어가 영구평화를 누릴 때 까지는 성 밖에서 살면서 창조적 방황을 했습니다(창 20:13 <하나님이 자신을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증언; 히 11:8-16).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 11:10).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고이 가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두 선민옹호 본문인 창세기 12:2 과 18:18 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큰 민족"("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혹은 "강대한 나라"("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로 불립니다. 이 큰 민족 혹은 강대한 나라 고이 가돌은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과 비폭력 평화와 자비를 전파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큰 민족"과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일한 고이 가돌(gôy gādôl)입니다. 고이 가돌은 의(체데크)와 공도(미쉬파트)를 행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군사적 정복이나 경제적 지배력을 통한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의와 공도를 이루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창 18:19). '의(義)'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데크(츠다카)는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회구성원이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잔류하도록 베푸는 선제적 사랑과 의리를 가리킵니다. '공도(公道)'라고 번역된 미쉬파트는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법적 강제를 통해서 강자를

견제하는 사법적 개입을 가리킵니다. 미쉬파트는 약자 옹호적인 강자 억제이며, 체데크는 선제적인 약자배려, 약자옹호, 약자견인과 부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유업무가 바로 체데크와 미쉬파트 집행입니다. 모든 종류의 약자 지탱 사역. 모든 종류의 법적, 정서적, 사회복지적, 약자 부축적, 약자 지탱적, 약자 옹호적 사역이 하나님의 고유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 편 6 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계만민에게 경배받아야 할 보편적 하나님입니다. 의와 공도는 보편적인 인류사의 중심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약자 옹호적인 하나님되심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을 세계 만민에게 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마 28:18-20). 나사렛 예수와 바울이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 하나님은 난민을 위해 도시의 압제적 군주들을 견제하고 질책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온 세계만민에게 알려져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은 만민에게 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8-19)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7)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창세기 12:2 과 22 장 16-17 절에 대한 긴 해설입니다.
<내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한다.> 창세기 12:2 과 22:17 의 의미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8-15 절에서
기막히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 장 8-15 절에서 창세기 12 장 2 절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를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선민의 가장 좋은 열매는 만민을
위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바쳐진 이삭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바친 선민의
대표자 나사렛 예수의 예표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만민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사랑, 자비,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전파할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약성서의 선민사상은 끝내
오해되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구약성서의 선민사상을 처음으로 선포한 모세와 그것의 참된 의미를 가장 잘
석명(釋明)한 사도 바울의 선언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5-6).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 3:2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터, 성, 나라를 찾기 위해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난민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현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떠돌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 이 저리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영적 난민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주시길 간구합니다.